대학주보 | 제1709호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6 뉴스

학교폭력 입학전형 필수반영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오는 2025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일부 대학입학전형에 필수 반영된다. 2025학년도 대입에 선 체육특기자전형에만 반영될 예 정이고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전 형에 필수 반영된다.

이는 지난달 30일 한국대학교육 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학교폭 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 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대교협은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2026 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 항을 ▲학생부(교과/종합)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의 모든 전형에 필수 반영하도록 한 바 있 다. 다만 조치사항의 세부적인 반 영 방식과 기준은 대학이 자율적 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학 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유형에 따라 점수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유형을 1~9호 로 구분하고 있다. 각 호에 해당하 는 조치사항은 ▲1호 피해 학생에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 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 봉사 ▲ 4호 사회봉사 ▲5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



입학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유형에 따라 대입 시 점수를 차등 적용하겠다 밝혔다.

(사진=박상희 기자)

호 전학 ▲9호 퇴학 처분이다.

우리학교는 1호~3호에 해당하는 조치사항은 감점 없이 대입에 반 영할 예정이다. 입학처는 조치사 항 평가 방식으로 정시 일반전형 은 성적을 감점하는 방식의 정량 평가를,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하는 서류 중심 전형엔 정성평가 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체적인 감점 방식이나 기준에 대 한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 은 상태다. 송주빈 입학처장은 "학 교폭력 조치사항을 몇 점 감점할 지나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는 구 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며 "수능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니까 아마 정량적 으로 몇 점 감점할지를 정해야 될 것 같고 수시 전형의 서류 전형은

정성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성 평가로 하는 등 전형에 따라 다르게 논의를 해서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2026학년도 전형 계획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그때쯤 세부적인사항이나올 것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시 일반전형에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 당락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송 처장은 "0.1점으로도 대입의 당락이 결정되는 수능은 학교폭력에 따른 3점, 5점과 같은 감점이 크다"며 "조치사항 반영의 영향이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위치가 변경된다. 현재 조치사항별

학생부 기재 위치는 ▲1, 2, 3, 7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4호~6호 출결상황 ▲8, 9호 인적·학적사항 항목이다. 하지만 2024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는 모든 조치 사항이 일원화된 항목에 기재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조치사항의 보존 기간 또한 6호 ~8호에 한해 변경된다. 현재 각 조 치사항에 따른 보존 기간은 ▲1호 ~3호 졸업과 동시에 삭제 ▲4호~7호 졸업후 2년 보존 ▲8호 졸업후예외 없이 2년 보존 ▲9호 영구보존이다. 하지만 ▲6, 7호 졸업후 4년 보존 ▲8호 졸업후예외 없이 4년 보존으로 6호~8호의 보존 기간이 2년 늘어났다. 다만 6호와 7호의경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시 삭제가 가능하다.

CPA(공인회계사) 합격자 수 근래 최저

곽다은 기자 kkyu1109@khu.ac.kr

제58회 공인회계사 시험(CPA)에서 우리학교가 51명의 최종 합격자를 기록하며 최근 5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학교가 배출한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수 순위는 2022년 79 명으로 6위, 2021년 76명으로 6위, 2020년 85명으로 5위, 2019년 72명으 로 6위다.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 합 격자 수는 총 1,100명으로, 이중 우 리학교는 51명의 합격자를 기록했 다. 대학 순위는 8위다.

올해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률도 작년에 비해 7%p가 감소한 26.3%를 보이며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라 매 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1,024명과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득점자 중전 과목 고득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정한 결과이다. 따라서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이었던 총 1,100명이 선발됐다.

이에 우리학교 공인회계사 준비 반인 청현재 담당 최승욱 교수는 "합격자 수 감소에는 복합적인 요 인들이 작용했을 것이며 대체로 타 대학 장수생이 많이 합격했기 때문 에 총 합격자 수 감소에 영향을 주 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합격한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덧 붙였다.

